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digos.weebly.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3년 4월

선교편지 제 54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당시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했듯이 저 역시 외국어를 잘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 주변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외국인들과 가까이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번, 동네 목욕탕에서 가서 목욕을 하던 시절 이었는데, 그 날은 매주 토요일에 목욕을 했던 평상시와 달리 월요일 오전에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욕탕에서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새 하얀 외국인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목욕을 하는 등 마는 등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그 어렵다는 '영어 회화'를 통해 그들이 미국 물몬교 선교사들이라는 것을 알아 낸 감격적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디고스 지역에는 한국 선교사는 물론이고, 현지 주민이 아닌 외국인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라고는 마띠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온 카톨릭 신부와 대화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로 인해서 디고스에서는 학생들로 가득찬 학교는 물론이고, 시내에서도 저희가 외국인임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한류의 영향, 그리고 예일 교회의 단기 선교로 인한 지역내의 인지도 상승등의 이유로 예상치 않은 현지인을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어서 선교 사역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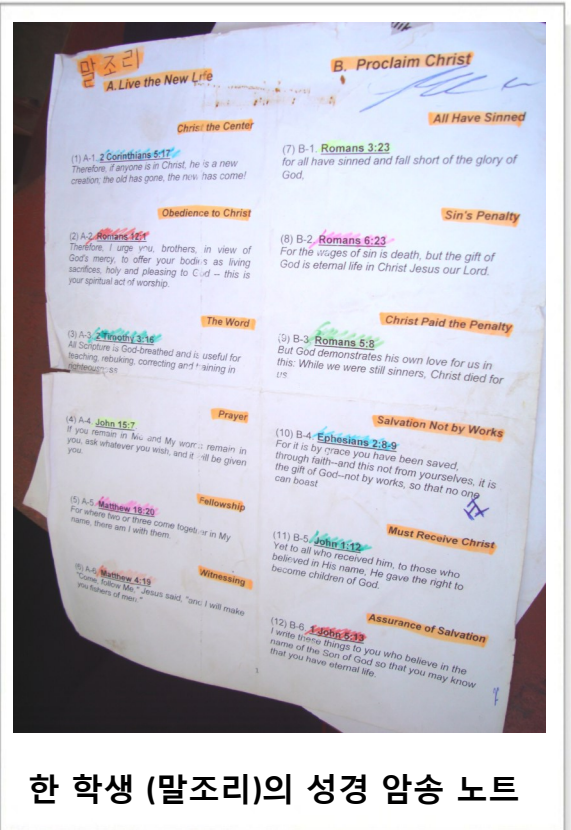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대상 16:8)

사역으로 인하여 이곳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이 저를 '파파 첸'이라고 부르면서 제 주변에 서성 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현지 드라마의 등장 인물 중에서 중국계의 자~알(?) 생긴 배우와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가까이 와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과 아주 쉽게 친해 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점이나 은행과 같은 곳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짧은 대화를 통해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물어 봅니다. 현지 TV에서 방송되는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의 연예가 소식을 알려 달라고 할 때는 난처 하기도 하지만, 두터운 장벽을 허물기에는 충분합니다.

몇 주전, 매주 토요일마다 마띠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글 학교 수업 중에 저를 찾아 온 방문객으로 인하여 수업을 잠시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30세 미만으로 보이는 젊은 부인인데, 저를 보자마자 유창한 한국말로 반가운 인사와 함께 자기 소개를 합니다. 마띠 지역으로부터 약 10 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으며, 약 2년 전에 광주에 있는 한국 사람과 국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와 보니 부모님께서 작년 7월 예일 교회의 선교 집회에 참석을 하셨고, 마띠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가 한국말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반갑고 감사해서 일부러 저를 찾아 인사를 하기 위해 왔답니다.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간다고 하기에,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물으니 "우리 남편은 제가 없으면 큰일 나요."하고 유창한 한국말로 대답을 합니다. 저희 토요 학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제한을 하고 그동안 새로운 학생들을 받지 않았는데,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날부터 부인의 남동생이 친구와 함께 한국 학교에 새롭게 등록을 하고 한국말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안텔'은 마띠 고등학교가 아닌 인근 지역의 사립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도 마띠 고등학교의 토요 한글 학교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 와서 한국말을 너무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등록을 시켜 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학생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배우고 싶은 바램이 너무 간절하게 보여서 학기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친구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같이 배우게 해 달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또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 하는지, 제가 모르는 드라마와 연예인들의 최근 소식을 꿰차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TV를 보다가 텍스트로 한국말을 물어 볼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대 합니다. 토요 학교에 뒤늦게 들어 온 것을 만회하려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로 운영되는 성경 암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미 30개의 성경 구절을 모두 암송하여 기존의 학생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 (말조리)의 성경 암송 노트

저희가 외국인인 까닭에, 특별히 한국인임으로 인해서 현지인을 부단히 만나야 하는 선교 사역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말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현지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제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선교 계획이나 예상에는 전혀 없었던 전폭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입니다. 5년전 이곳에 부임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생소한 선교지에서 저를 과연 어떻게 쓰실까 하는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와 배경이 전혀 다른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 두고,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수험생처럼 뒤늦은 후회와 아쉬움도 참 많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불러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을 한번이라도 더 볼 걸', '영어 공부와 현지어 공부를 충분히 해 둘 걸',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5)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시고, 맡겨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된 길도 아니고, 부족하고, 어려워 피하고 싶은 길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쓰임 받음에 감사하는 고백을 통하여 역사 하심을 깨닫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수천명분의 식사를 눈에 보이게 미리 넉넉하게 준비하여 풍성하게 먹으셨다면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일이었겠지만, 보잘것 없지만 있는 그대로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여 오천명 이상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실제로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족함 그대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쓰임 받는 것도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경험과 내 계획을 내려 놓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흥미 진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사 55:8)

 항상 무더운 이곳이지만, 3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 땀을 비처럼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된 위클리프의 페이스 학교는 5월말에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하는데, 이곳에 있는 현지 학교들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중순부터 방학이 시작되고, 더불어 졸업식이 시작 됩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마띠 고등학교의 토요 학교도 방학과 졸업식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연간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 전 보다 더 바쁘게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동안 저희와 함께한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진학하게 될 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가족들이 먼저 주님을 알아야 하겠기에, 지난 주에는 학부모들을 학교로 초대하여 기쁨과 감사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장학생 모두가 30개의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있지만, 몇몇 대표 학생들을 선정하여 부모님들 앞에서 30개의 성경 구절을 모두 암송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 하셔서 자녀들의 암송을 통하여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눈 빛에서 기쁨과 신뢰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 49:22)

그런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마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토요 학교가 언제 또 다시 시작하는지, 입학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주지사로부터 장학생을 선정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입소문을 통하여 인근 지역에까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데, ‘반살란’이라는 지역에서는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수시로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내에서는 지원자들이 자발적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토요 학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망 가운데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이번 장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절망과 체념을 넘어선 ‘소망’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꿈으로 학교 성적 순서가 전체적으로 뒤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식에서 장학생 및 그들의 가족과 함께

작년 이맘때,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후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무안 할 정도로 전체 분위기가 가라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들에게서 학교 교사,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농업 전문가, 변호사등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장학 프로그램이 큰 기대 가운데 첫발을 내 뒀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보이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곳에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2서 1:3)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스파마스트 대학 선교를 위하여
4.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5.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